

技術開發과 競爭力 강화

＝ 東亞建設産業(株) ＝

경오년의 국내·외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불릴 만큼의 급격한 변화와 충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처럼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였다.

동아건설은 이처럼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과감한 의식개혁, 기술과 경영의 국제화,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삼아 지난 한해동안 매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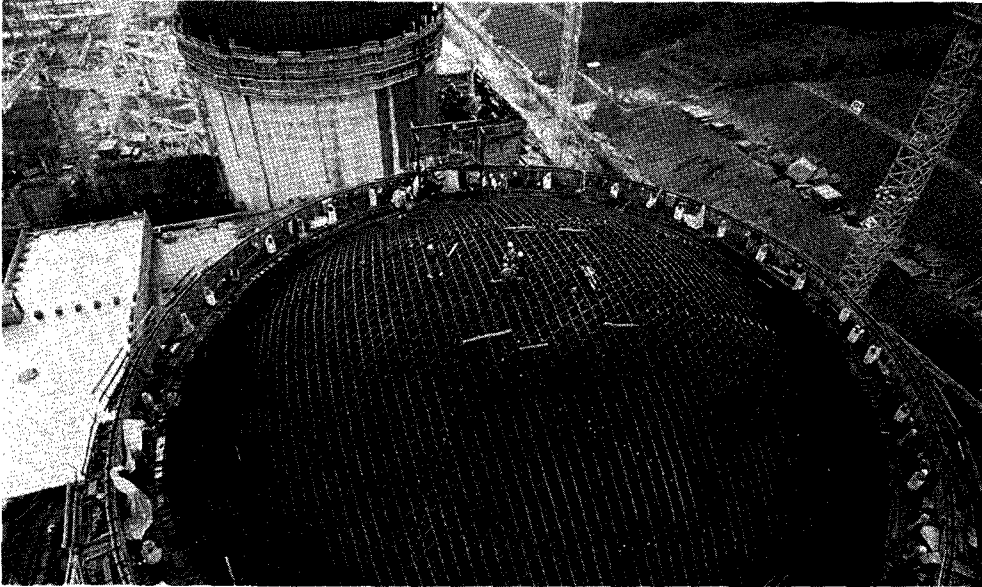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국내에서는 수많은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였고 특히 원자력 부문에서는 1982년 3월에 원자로 건물 기초굴착에 들어간 울진원자력 발전소 1,2호기를 꾸준한 신공법 개발, 전 직원의 합심과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2월 27일 2호기 준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울진 2호기가 상업운전을 개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능력을 대외적으로 다시한번 확인 시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자부하며, 국외적으로는 지난 2월에 55억 5천만불이라는 단위공사 금액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인 리비아 대수로 2차공사를 계약하여 총규모 91억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세계속의 동아”의 위치를 확고히 하면서 명실공히 불멸의 걸작품을 남기겠다는 소명감으로 전체 동아인이 전력 투구한 한해였다.

이제 경오년을 뒤로하고 신미년을 맞이하면서 동아건설은 21세기의 주역이 되기위해 급격

한 변화와 혼돈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최대 역점을 둘 것이다.

우선적으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통합관리체제와 경영정보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며,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UR) 서비스 협상으로 인하여 건설시장 개방이 구체화 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과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수주, 시공, 엔지니어링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경영체로 전환하는 경영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수요를 스스로 창출하는 프로젝트의 발굴-기획-타당성 조사-기본설계-상세설계-시공(감리) 시운전-조업 및 보수까지 일련의 전과성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ENGINEERING CONSTRUCTION)능력을 배양하여 시장개방에 따르는 국제 경쟁력 향상을 용의 주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 부문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적으로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 원유가가 상승하고 최근의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전망의 불투명과 환경오염 문제에 따른 대체에너지 개발이 미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원자력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그동안 국내 원전건설에 초창기 부터 참여해온 주력업체로



서 원전후속기 건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왔다.

먼저 고리, 월성, 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축적된 방대한 건설자료와 각종 기술 DATA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은 물론 정밀 분석 검토하여 원전건설 시공 및 관리 기법을 체계화 시켰다. 이를 토대로 현재 모든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인 유능한 기능인력의 부족현상과 고임금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노동 집약적인 기존의 시공기법을 탈피하기 위해 기계화 시공과 신공법 개발 및 VE기법을 적용하여 원전건설에 있어서 공기단축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KNOW-HOW를 개발 축적해왔다.

또한 원전건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간의 원전건설의 품질보증 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 보완하여 고도의 신뢰성을 갖는 독자적인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조직화시켜 지난해 11월말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로 NA, NPT인증서를 취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원전건설 능력을 인정받았을 뿐만아니라, 방대한 인력과 물량이 투입되고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원전공사의 효율적이고 정확,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착화된 전산 SYSTEM의 문제

점을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이처럼 동아건설은 대망의 1991년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작업을 마무리 함으로써 울진 3,4호기 및 월성 2호기 건설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아인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한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원전건설의 참여에 만족하지않고 이를 통한 원전 시공기술의 완전 자립화를 기필코 이룩하여 원자력 분야의 선진대열에 동참함은 물론 시공기술을 원전건설의 후진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1991년이 되도록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였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하여서 관련기관과의 꾸준한 접촉은 물론 선진국의 기술정보와 문헌수집 및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필요한 시공기술 습득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원전건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왜곡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에 있어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 자체적으로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여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호응속에 원자력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